

# KOSDAQ | 전자와 전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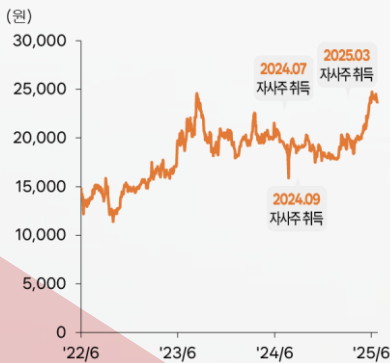
## 동양이엔피 (079960)

### 전원공급장치(SMPS)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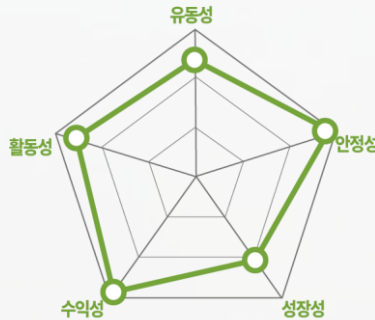
#### 체크포인트

- 1987년에 설립된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전문기업. 1989년 삼성전자와 파트너십 체결로 회사 성장의 초석 마련. 2025년 1분기 매출 기준 삼성전자 및 그 종속기업향 88.8%, 기타향 11.2% 차지
- 투자포인트: 1)앞선 원가 경쟁력 2)스마트그리드 솔루션 기업으로 확장 가능성
- 고객사의 재고 조정으로 2025년에는 매출액 5,560억 원(yoy 1.4%), 영업이익 457억 원(yoy -11.5%) 전망

####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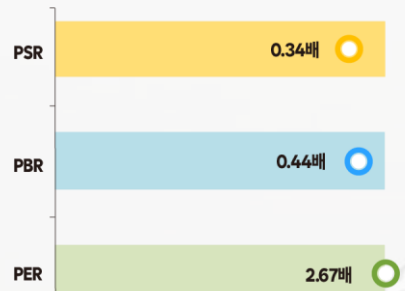


#### 재무지표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IT산업 내 등급화

####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Analyst 김선호 shkim@kirs.or.kr

RA 이희경 hk.lee@kirs.or.kr

### 전원공급장치 전문기업

1987년에 설립된 전원공급장치 전문기업. 1989년 삼성전자와 파트너십 체결로 회사 성장의 초석 마련. 2025년 1분기 매출 비중은 삼성전자 및 그 종속기업항 88.8%, 기타항 11.2% 차지

### 앞선 원가 경쟁력

동양이엔피는 삼성전자에 TV항 SMPS 및 스마트폰 충전기를 납품하는 동종업체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음. 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베트남 호치민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 원가 경쟁력이 중요한 해당 시장에서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가능

###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기업으로 확장 가능성

인버터, ESS, 전기차 충전기로 연결되는 홈 그리드(Home Grid) 솔루션 사업자로 확장하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인버터와 전기차 충전기 모두 SMPS의 한 종류로, 동양이엔피는 기술과 제조에서 강점이 있음. 해당 사업부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중장기 비전에 대한 가시성 상승 요인

### 주주환원과 신사업(스마트그리드 솔루션)에서 성과 필요

낮은 주주환원과 신사업(스마트그리드 솔루션)에 대한 낮은 가시성이 주가 저평가 요인. 배당성향 확대, 적극적인 IR 등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스마트그리드 솔루션에서 향후 성과가 주가 상승의 키

###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F |
|--------------|-------|-------|-------|-------|-------|
| 매출액(억원)      | 5,194 | 5,598 | 5,369 | 5,484 | 5,560 |
| YoY(%)       | 12.6  | 7.8   | -4.1  | 2.1   | 1.4   |
| 영업이익(억원)     | 148   | 278   | 430   | 516   | 457   |
| OP 마진(%)     | 2.9   | 5.0   | 8.0   | 9.4   | 8.2   |
| 지배주주순이익(억원)  | 177   | 230   | 470   | 696   | 457   |
| EPS(원)       | 2,253 | 2,921 | 5,975 | 8,849 | 5,810 |
| YoY(%)       | -24.6 | 29.6  | 104.6 | 48.1  | -34.3 |
| PER(배)       | 8.3   | 5.1   | 3.5   | 2.0   | 4.1   |
| PSR(배)       | 0.3   | 0.2   | 0.3   | 0.3   | 0.3   |
| EV/EBITDA(배) | 2.6   | 0.5   | 0.2   | N/A   | N/A   |
| PBR(배)       | 0.6   | 0.4   | 0.5   | 0.4   | 0.4   |
| ROE(%)       | 7.0   | 8.5   | 15.5  | 19.2  | 10.9  |
| 배당수익률(%)     | 1.6   | 2.0   | 1.9   | 3.3   |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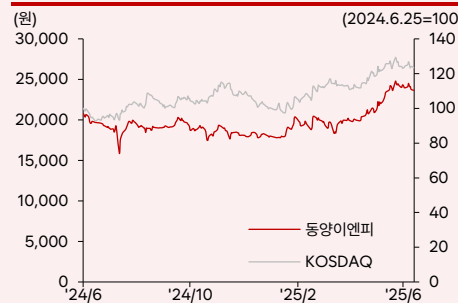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4년부터 EV(시가총액+순부채)<0이 되어 EV/EBITDA가 계산되지 않음

### Company Data

|               |                 |
|---------------|-----------------|
| 현재주가 (7/7)    | 23,650원         |
| 52주 최고가       | 24,750원         |
| 52주 최저가       | 15,870원         |
| KOSDAQ (7/7)  | 778.46p         |
| 자본금           | 39억원            |
| 시가총액          | 1,859억원         |
| 액면가           | 500원            |
| 발행주식수         | 8백만주            |
| 일평균 거래량 (60일) | 3만주             |
| 일평균 거래액 (60일) | 6억원             |
| 외국인지분율        | 75.5%           |
| 주요주주          | 김재수 외 5인 40.16% |

### Price & Relative Performance



### Stock Data

| 주가수익률(%)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
| 절대주가     | 11   | 28.5 | 19.3 |
| 상대주가     | -1.8 | 18.6 | 29.9 |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EPS 중 가율, 수익성 지표는 'ROA',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 기업 개요

### 연혁

#### SMPS 전문기업 동양이엔피

동양이엔피는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전문 기업이다.

동양이엔피가 1987년 설립될 당시에는 국내 전자제품의 전원공급장치는 LPS(Linear Power Supply, 선형 전원 공급 장치)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주요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동양이엔피의 설립 주체들은 전원공급부분에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89년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 체결이었다. 이는 이후 30년 이상 이어지며 회사 성장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1989년에는 롯데 캐논, 1995년 일본 캐논, 1996년에는 신도리코, 1999년 휴맥스에 공급을 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2005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2000년대 이후 생산기지를 해외로 다각화했다. 2003년 칭다오 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2006년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 2008년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2019년에는 인도 노이다와 베트남 호치민에 생산법인을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 동양이엔피 연혁

| 설립(1980~)                 | 성장(1990~)            | 도약(2000~)                     | 확장(2010~)                           |
|---------------------------|----------------------|-------------------------------|-------------------------------------|
| 1987.03 동양계전공업(주) 설립      | 1995.06 일본 Canon사 수출 | 2000.07 중국 위해공장 설립            | 2010.03 성실납세 우수기업 표창                |
| 1987.05 삼성전자가래            | 1996.05 ISO9002 인증   | 2003.04 중국 청도공장 설립            | 2013.06 해주법인 설립                     |
| 1989.07 (주)롯데캐논 거래        | 1996.06 (주)신도리코 거래   | 2004.06 일본 Canon LP 거래        | 2014.03 혁신 우수 협력사 삼성전자 (품질부문)       |
| 1989.12 수출(전민물담수성(대통령 표창) | 1998.03 중국 천진공장 설립   | 2004.07 ISO 14001 (환경경영체계) 인증 | 2015.06 현대자동차용 무선충전기 등록 (현대모비스)     |
|                           | 1999.06 ISO9001 인증   | 2005.02 코스닥 상장                | 2017.11 IATF 16949 인증 취득            |
|                           |                      | 2005.07 동양이엔피(주) 사명 변경        | 2018.01 필립스 헬스케어 Shaver용 Charger 등록 |
|                           |                      | 2008.07 베트남 법인 설립             | 2019.05 인도(노이다)법인 설립                |
|                           |                      | 2009.12 태양광 INVERTER 인증 획득    | 2019.08 호치민 법인 설립                   |
|                           |                      |                               | 2021.04 동양이엔피 미국 설립                 |

자료: 동양이엔피,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기업 개요

#### 매출 비중(1Q25)

삼성전자 및 그 종속기업 88.8%

기타 11.2%

동양이엔피는 SMPS 전문기업으로, 2025년 1분기 기준 삼성전자 및 그 종속기업향 매출 비중이 88.8%, 기타향 매출 비중이 11.2%를 차지한다.

삼성전자 및 그 종속기업으로 TV SMPS, 스마트폰 충전기, 모니터나 청소기에 필요한 어댑터 등을 납품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TV용 SMPS 약 45%, 스마트폰 충전기 약 35%, 기타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고객 매출에는 태양광 인버터, 전기차 충전기, 소니 TV 향 SMPS, 팍스콘향 어댑터, 현대모비스향 무선 충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은 해외에 있는 연결중속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청도신동양계전(유한회사, 지분율 100%)은 중국 청도에 있는 법인으로 SMPS 및 어댑터를 생산하고 있다. 동양이엔피 베트남(지분율 100%)은 하노이에 있는 법인으로 충전기와 SMPS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양이엔피 호치민(지분율 100%)은 SMPS를 생산하고 있다. 동양이엔피 인도(지분율 100%)에서는 충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외에 연결중속법인으로 전선판매업을 영위하는 대한케이블(지분율 100%)과 동양능원(지분율 58%)이 있다.

주요 종속회사 현황(20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이익(손실) | 총포괄이익(손실) |
|-----------|--------|--------|--------|---------|-----------|-----------|
| 청도신동양계전   | 10,332 | 876    | 9,456  | 8,543   | 360       | 1,079     |
| 동양이엔피베트남  | 12,969 | 1,279  | 11,690 | 10,129  | 394       | 1,326     |
| 동양이엔피루마니아 | 1,510  | 21     | 1,488  | 28      | -40       | 61        |
| 동양이엔피인도   | 24,042 | 8,368  | 15,674 | 60,730  | 1,235     | 2,715     |
| 동양이엔피호치민  | 96,331 | 49,098 | 47,233 | 155,459 | 1,804     | 5,448     |
| 동양이엔피미국   | 262    | 19     | 243    | 491     | -84       | -50       |
| 랩스(주)     | 9      | -      | 9      | -       | 0         | 0         |
| 대한케이블     | 28,450 | 4,256  | 24,194 | 23,513  | 1,424     | 791       |
| (주)동양능원   | 10,665 | -      | 10,665 | -       | -134      | -134      |

자료: 동양이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양이엔피 주요 제품 충전기



자료: 동양이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양이엔피 주요 제품 SMPS



자료: 동양이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양이엔피 주요 제품 어댑터



자료: 동양이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양이엔피 주요 제품 태양광 인버터



자료: 동양이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고객



자료: 동양이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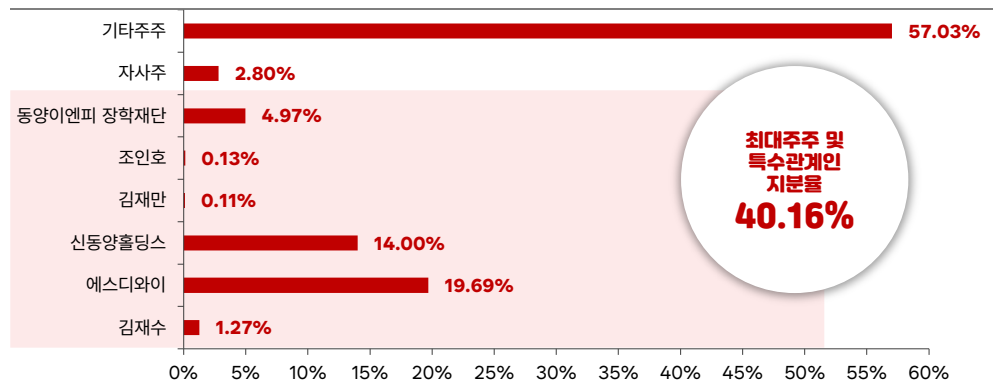
**3 주요주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40.1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0.16%이다. 1대주주 에스디와이는 19.69%, 2대주주 신동양홀딩스는 1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비상장회사로 상세한 지분율을 알 수 없으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것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김재수·김재만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에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이사 김재수(1940년생, 남)는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진전기, 용인전자, 대한케이블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7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동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대표이사 김재만(1974년생, 남)은 대표이사 김재수의 자녀로, 주요 경력으로는 오리엔텍이 있으며, 2010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동사에서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1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그 외 5% 이상의 주주는 없으며, 자사주 비중은 2.80%이다. 2025년 6월 17일 기준으로 자사주가 추가로 매입되어 자사주 비중은 3.9%이다.

**주요주주 지분율(1Q25)**



자료: 동양이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스위칭 전원 공급장치)**

SMPS는 현대 전자기기의 필수적인 전원 공급 장치이다. SMPS의 역할은 첫째, 외부에서 공급되는 교류(AC, Alternating Current) 전력을 전자기기에 필요한 직류(DC, Direct Current) 전력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또한, 기기가 필요로 하는 전압과 전류 특성에 맞게 전력을 조절하여 공급한다. 예를 들어, 가정의 220V AC 전원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낮은 전압의 DC 전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SMPS는 입력 전압에 변동이 있더라도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전력망의 전압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불안정하게 변동할 수 있다. 이는 민감한 전자부품을 보호하고 기기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과전류 보호(OCP, Over Current Protection), 과전압 보호(OVP, Over Voltage Protection), 저전압 보호(UVP, Under Voltage Protection) 등 다양한 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전자기기와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적인 구분에 따라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는 SMPS와 LPS(Linear Power Supply, 선형 전원 공급장치)로 구분된다.

LPS는 오래 전부터 사용된 기술로 변압기(Transformer) 외에는 별다른 전자부품이 사용되지 않으며, 무겁고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전력효율보다 출력 품질과 안정성이 중요한 정밀 계측 장비,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의료 장비 등에 적용되고 있다.

SMPS는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프로세서를 응용한 것으로 소형, 경량, 고효율이 가능하다. LPS에 비해 높은 전력 변환 효율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들 덕분에 SMPS는 IT 및 가전, 통신 장비, 조명, 산업용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자동차 전장, 신재생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산업에 필요한 전자 장비에서 사용되고 있다. SMPS는 가전제품 같이 내장형으로 공급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휴대가전 제품에서는 어댑터, 충전기와 같은 외장형으로 공급되기도 한다.

**공급 진입장벽:  
수요 대응 능력**

SMPS 산업은 대부분이 고객 주문형 시장으로 전자제품 완성품 제조업체의 특정모델을 위해 ODM 또는 OEM 형식으로 개발하여 생산현장에 공급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고객이 특정 모델에 대한 SMPS 개발을 의뢰하여 최종 제품을 승인 및 납품하는 산업 구매시장이다. 제조사의 완제품 특징에 따라 기능성, 안전성, 슬림화 등의 요구 사항이 제품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요 수요처의 최초 제품 개발단계부터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으로 수요처와 긴밀한 기술 개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고, 전자제품의 수명이 짧고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빠른 개발 능력이 요구된다.

개발 능력과 더불어 얼마나 빨리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대량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도 가장 중요한 경쟁요인 중 하나이다. 생산량이 확대될수록 평균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연동되어 원재료 구매력,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SMPS 수요에 가장 큰 변수는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며, 그 외에 변수로 기술, 판매사의 정책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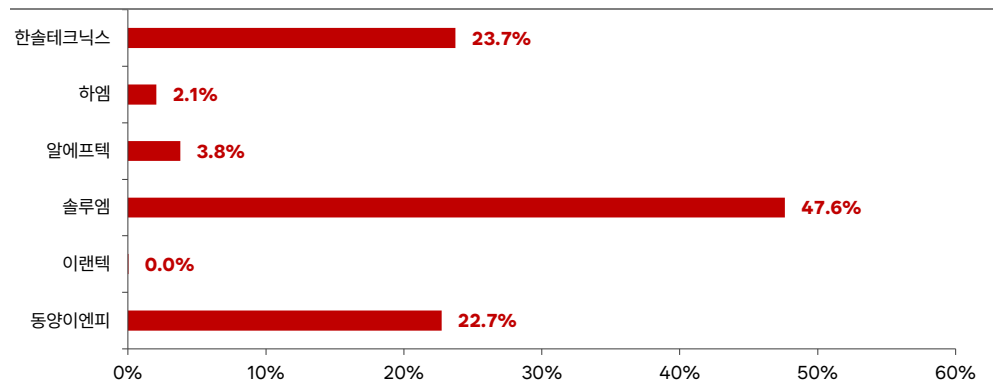
스마트폰향 SMPS 시장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SMPS 시장 또한 정체되어 있다. 애플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스마트폰 기본 구성품에서 충전기는 제외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 또한 시장 축소 요인이다. 반면에 스마트폰 기본 구성품에 기본으로 포함되던 저전력(15W) 번들 충전기에서, 고객사가 별도로 판매하는 고전력(25W~65W) B2C 제품으로의 전환은 제품의 평균판매단가를 상승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TV 향 SMPS 시장 또한 TV 판매량과 연동하며, TV 시장이 정체됨에 따라 판매량이 정체되어 있다. 기술 변화에 따라 보급형 중저가 TV 시장에서 메인보드, SMPS, LED 드라이버 세 가지 핵심 부품의 기능을 하나의 기판에 통합한 3in1 Board가 적용됨에 따라 SMPS 사업자 매출 확대에 기여를 했다. 이 외에도 TV 대형화 및 고화질화, 스마트 TV 기능 고도화에 따라 고성능 SMPS에 대한 수요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자향 내 동양이엔피 MS  
22.7%로 추정**

삼성전자향 SMPS 공급사에는 TV에는 동양이엔피, 솔루엠, 한솔테크닉스가, 스마트폰 충전기에는 동양이엔피, 이랜텍, 솔루엠, 알에프텍, 하엠(비상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삼성전자향 공급사 6사의 전원공급기 합산 매출액 기준으로 동양이엔피는 22.7%를 차지하고 있다. 합산 매출액은 SMPS 매출이 별도로 공개된 이랜텍, 솔루엠, 알에프텍, 한솔테크닉스는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활용했으며, 비상장업체 하엠은 전사 매출을 통해 구하였다.

삼성전자향 SMPS 공급사 합산 매출액에서 각사 매출 비중(2024년 기준)



자료: 각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앞선 원가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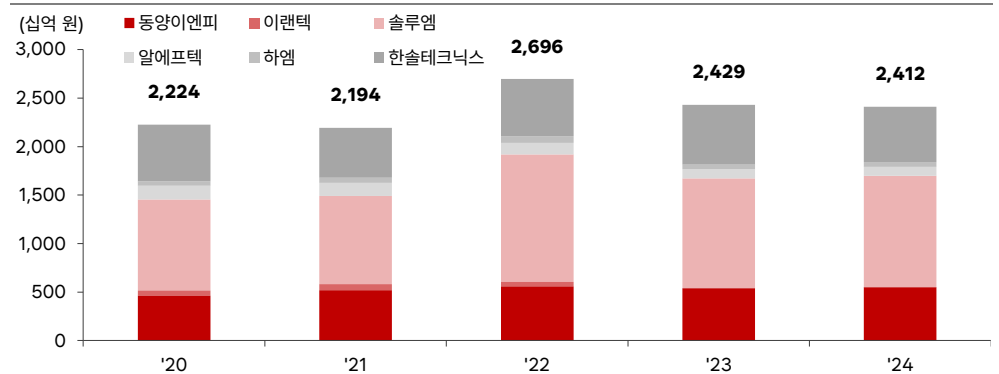
**삼성전자 향 SMPS 시장 정체 상태**

동양이엔피는 삼성전자에 TV 및 스마트폰 충전기, 기타 가전제품 SMPS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기준 삼성전자 및 그 종속기업향 매출 비중은 88.8%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SMPS 시장은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의 TV와 스마트폰 출하량이 정체기에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충전기를 제품 구성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본격화되며 관련 제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삼성전자에 SMPS를 납품하는 동사에게 물량 확대에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다.

실제로 과거 5년(2020년~2024년) 동안 삼성전자에 SMPS를 공급하는 주요 업체 6사의 매출액은 정체 상태에 있다. 2024년 6사의 합산 매출액은 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삼성전자 향 SMPS 공급사에는 TV향으로 동양이엔피, 솔루엠, 한솔테크닉스가, 스마트폰 충전기 향으로 동양이엔피, 이랜텍, 솔루엠, 알에프텍, 하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SMPS 매출이 별도로 매출이 공개된 이랜텍, 솔루엠, 알에프텍, 한솔테크닉스는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활용했으며, 비상장업체 하엠은 전사 매출을 통해 합산 실적을 계산했다.

**동양이엔피와 동종업체의 SMPS 매출액 추정치**



자료: 각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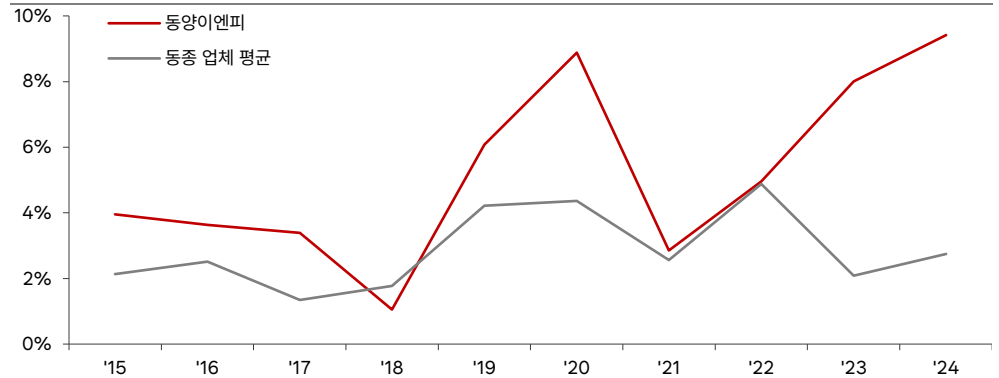
**원가 경쟁력이 중요한 시기 도래**

이처럼 전방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시장에서 제품의 기능적 차별화나 신제품 효과보다, 공급사 간 원가 경쟁력이 실적과 수익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슷한 성능이라면 더 저렴한 부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10년(2015년~2024년)의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통해 삼성전자 향 SMPS 공급사의 원가 경쟁력을 가능해보면, 동양이엔피가 가장 원가 경쟁력이 높은 회사로 보인다. 사업부문별로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합산 매출액과 다르게 전사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였다.

동양이엔피의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5.2%로 동종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 2.9%를 2.3%p 상회한다. 특히 최근 2년(2023년, 2024년) 평균 영업이익률의 격차가 6.3%p로 벌어진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2년 간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8.7%에 달한다.

동양이엔피와 동종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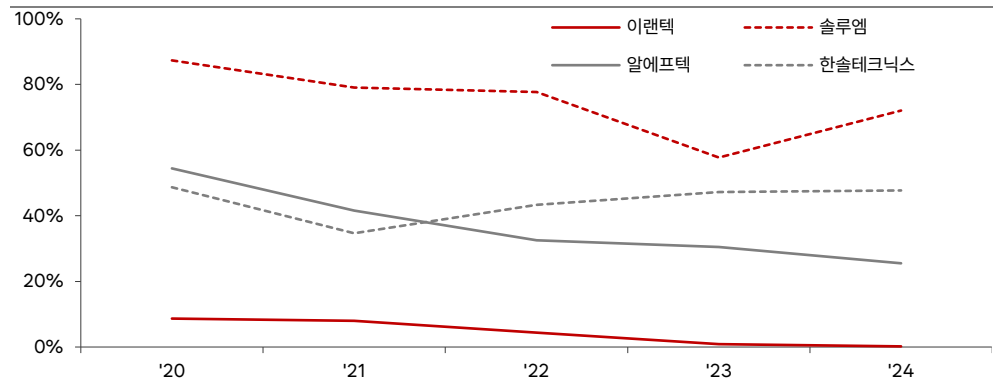


자료: 각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SMPS에 집중했던 동양이엔피**

동양이엔피와 동종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나는 것에는 업체마다 전략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SMPS 사업에 집중했던 동양이엔피와 다르게 대부분의 회사가 사업 다각화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 업체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하임을 제외하고 동종업체의 매출액을 보면 전체 매출액에서 SMPS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세에 있다.

동종업체의 SMPS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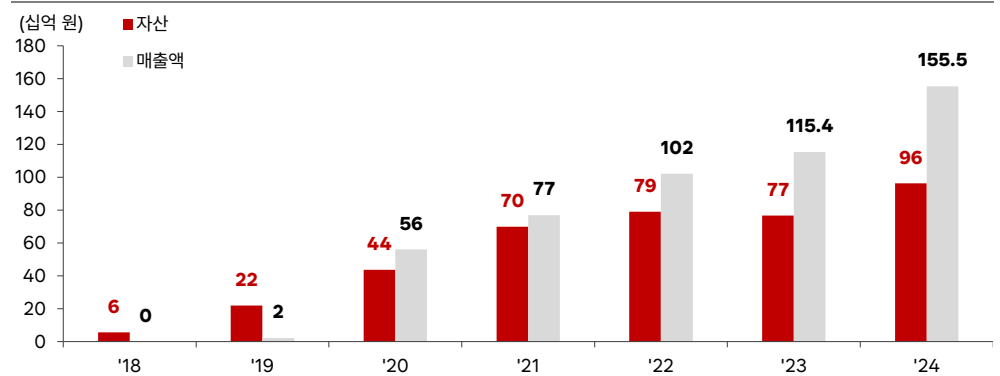
자료: 각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양이엔피 원가 개선에는 호치민 법인 자동화 효과가 큼**

SMPS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동양이엔피는 사업 다각화 대신 사업 경쟁력 강화를 택했다. 동사가 지난 5년(2020년~2024년) 동안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852억 원으로 5년 합산 영업이익 1,781억 원에 47.8%에 달한다. 이 기간 동사는 해외 공장 중 가장 큰 호치민 법인의 자동화에 집중했으며, 회사 측에 따르면 호치민 설비의 자동화율이 90% 수준이라고 한다.

앞서 영업이익률 비교를 통해 동양이엔피의 영업이익률이 동종업체와 차이가 확대된 부분을 언급했다. 이 시기 동양이엔피 호치민 법인의 자산과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동양이엔피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 효과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양이엔피호치민 자산과 매출액 추이



자료: 동양이엔피,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TV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사의 원가 경쟁력을 감안하면 꾸준히 고객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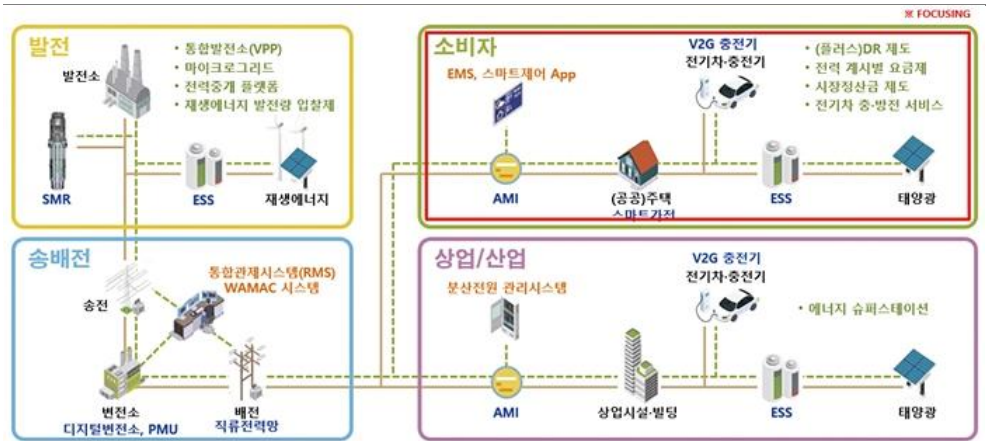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기업으로 확장 가능성**

**중장기 비전:**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동양이엔피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하며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전문기업’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인버터,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 제어형 EV 충전기로 구성된 지능형 에너지 네트워크가 있다. 이 시스템은 EMS(Energy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발전부터 저장,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발전-송배전-소비자(상업/산업용 수요, 소비자 수요)로 구성된 에너지 생태계에서 소비자 영역인 ‘홈 그리드(Home Grid)’ 부문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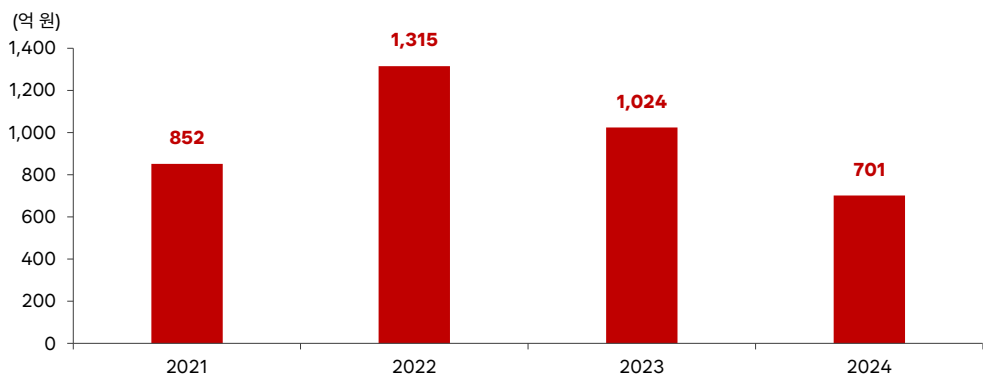
**스마트 에너지 생태계 구조 개념도**



자료: 동양이엔피,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양이엔피는 스마트그리드 솔루션의 일부인 태양광 인버터와 EV 충전기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앞서 설명한 삼성전자 및 그 종속기업향 매출 88.8%를 제외한 매출에서 절반 정도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동양이엔피 기타 매출 추이**



자료: 동양이엔피,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양이엔피는 2009년 태양광 인버터 인증을 획득하며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 동사가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배경에는 태양광 인버터 또한 SMPS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성된 직류 전기를 가정이나 산업에서 사용하는 교류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이는 SMPS의 기본적인 전력 변환(DC-AC) 기술과 맥을

같이 한다. 동양이엔피는 이미 고효율, 고밀도의 전력 변환 설계 및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태양광 인버터의 핵심 성능인 변환 효율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전기차 충전기 또한 SMPS이다. 외부의 교류 전원을 전기차 배터리에 맞는 고전압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동양이엔피는 SMPS를 통해 축적한 노이즈 저감, 전자파 해결, 회로 보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충전 효율과 안정성이 높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동양이엔피의 경쟁력은 국책과제인 ‘전기자동차용 고안전·고편의 무선충전 플랫폼 상용화 개발 및 실증’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무선충전 방식의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한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선 충전기는 자기 유도 또는 자기 공진 방식을 이용해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밀한 전력 제어 및 변환 기술이 필수적이다. 동사는 2024년 전남 나주시와 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주행 중 무선 충전 실증을 진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무선충전 도로 컨셉 아트**



자료: kg모빌리티,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사가 갖고 있는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부진했다.

태양광 인버터 사업 부진의 이유는 중국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인버터의 약 90%가 중국산이다. 또한, 국내 태양광 설치가 한동안 부진했던 영향도 있다.

동사의 전기차 완속 충전기는 2025년 처음으로 환경부 충전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급속 충전기 23개 업체, 완속 충전기 33개 업체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됐다.

**2025년**

**태양광 인버터와  
전기차 충전기에서 성과 기대**

2025년에는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동양이엔피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인버터의 경우 2025년 6월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천명하고 있으며, 중국산에 밀려 고전하던 국산 태양광에 대한 지원책이 기대된다. 2025년 7월 1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 의원은 국가자원 안보특별법에 명시된 ‘핵심자원’의 정의에 외국인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부품도 핵심자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의 공급망 불안 및 국산화 필요성이 언론과 국정감

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인버터 제조업체는 연구개발, 시설 투자, 실증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태양광 사업에서 국산 인버터 사용이 장려되거나 의무화될 수 있어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5년 완속 충전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수가 9.1만대로 전년 대비 59.6% 증가한 가운데, 환경부 충전기 보조금 업체로 신규로 선정된 동양이엔피의 선전이 기대된다.

동양이엔피는 스마트그리드 솔루션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2030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진화하려는 동양이엔피의 노력이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태양광 인버터 및 전기차 충전기에서 경쟁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당 사업부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동사 주가에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실적 점검**

‘24  
**매출액 5,484억 원(yoy 2.1%)**  
**영업이익 516억 원(yoy 20.2%)**

동양이엔피의 2024년 연결실적은 매출액 5,484억 원(yoy 2.1%), 영업이익 516억 원(yoy 20.2%)을 기록했다. 영업 이익률은 9.4%로 전년 대비 1.4%p 상승했다. 주요 고객사의 물량이 증가했으며, 원가가 좋은 호치민 법인 매출액이 1,555억 원(yoy 34.8%)으로 증가한 점도 원가율 개선에 기여했다.

삼성전자 및 그 종속기업향 매출이 4,783억 원(yoy 10.1%)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 매출이 감소한 것을 감안 하면 동양이엔피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TV 시장에서 고객의 라인업 중 중저가에 들어가는 3in1 Board는 메인보드, SMPS, LED 드라이버 세 가지 핵심 부품의 기능이 하나의 기판에 통합된 제품으로, 단일 제품만 납품할 때의 SMPS 대비 단가가 높다. 제품 단가 상승으로 TV 부문 매출이 증가했다. 핸드폰 충전기는 수량은 감소했지만, 고속 충전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며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기타 고객 향 매출은 701억 원(yoy -31.5%)을 기록했다. 업황 부진으로 태양광 부문의 실적 감소가 컸다.

**2025년 실적 전망**

‘1Q25  
**매출액 1,634억 원(yoy 30.1%)**  
**영업이익 159억 원(yoy 44.7%)**

2025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634억 원(yoy 30.1%), 영업이익 159억 원(yoy 44.7%)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9.7%로 전년 동기 대비 1.0%p 상승했다.

삼성전자 및 그 종속기업향 매출이 1,452억 원(yoy 37.3%)을 기록했다. 2025년 1분기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구체화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던 시기였다. 관세 부과 전 고객의 재고축적이 이뤄지면서 높은 매출 성장률을 달성했다.

기타 고객 향 매출은 182억 원(yoy -8.4%)을 기록했다. 태양광 시장의 부진이 지속됐다.

동양이엔피 분기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 1Q23  | 2Q23  | 3Q23  | 4Q23  | 1Q24   | 2Q24   | 3Q24   | 4Q24   | 1Q25         |
|----------------|-------|-------|-------|-------|--------|--------|--------|--------|--------------|
| 매출액            | 1,328 | 1,307 | 1,475 | 1,259 | 1,256  | 1,415  | 1,593  | 1,220  | <b>1,634</b> |
| S사 및 그 종속기업    | 1,086 | 1,020 | 1,206 | 1,033 | 1,057  | 1,182  | 1,459  | 1,084  | <b>1,452</b> |
| 그 외            | 242   | 288   | 269   | 226   | 199    | 233    | 134    | 135    | <b>182</b>   |
| S사 및 그 종속기업 비중 | 81.8% | 78.0% | 81.8% | 82.1% | 84.2%  | 83.5%  | 91.6%  | 88.9%  | <b>88.8%</b> |
| 영업이익           | 101   | 104   | 121   | 104   | 110    | 135    | 156    | 115    | <b>159</b>   |
| 영업이익률          | 7.6%  | 7.9%  | 8.2%  | 8.2%  | 8.7%   | 9.6%   | 9.8%   | 9.4%   | <b>9.7%</b>  |
| YoY            |       |       |       |       |        |        |        |        |              |
| 매출액            |       |       |       |       | -5.4%  | 8.2%   | 8.0%   | -3.1%  | <b>30.1%</b> |
| S사 및 그 종속기업    |       |       |       |       | -2.6%  | 15.9%  | 20.9%  | 5.0%   | <b>37.3%</b> |
| 그 외            |       |       |       |       | -17.8% | -19.1% | -50.1% | -40.0% | <b>-8.4%</b> |
| 영업이익           |       |       |       |       | 8.9%   | 30.6%  | 28.7%  | 10.7%  | <b>44.7%</b> |

자료: 동양이엔피,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5E

매출액 5,560억 원(yoy 1.4%)

영업이익 457억 원(yoy -11.5%)

2025년 실적은 매출액 5,560억 원(yoy 1.4%), 영업이익 457억 원(yoy -11.5%)이 전망된다. 영업이익률은 8.2%로 전년 대비 1.2%p 하락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및 그 종속기업항 매출액은 4,835억 원(yoy 1.1%)을 예상된다.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TV 부문에서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운 구간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2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예상되며,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서 실적에 변수가 있다.

기타 고객 항 매출은 725억 원(yoy 3.3%)이 예상된다. 태양광 인버터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바닥을 다지며 수요가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부 충전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업체로 신규 선정되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동양이엔피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E  |
|----------------|-------|--------|-------|--------|--------|--------|
| 매출액            | 4,614 | 5,194  | 5,598 | 5,369  | 5,484  | 5,560  |
| S사 및 그 종속기업    | 3,710 | 4,342  | 4,283 | 4,345  | 4,783  | 4,835  |
| 그 외            | 904   | 852    | 1,315 | 1,024  | 701    | 725    |
| S사 및 그 종속기업 비중 | 80%   | 84%    | 77%   | 81%    | 87%    | 87%    |
| 영업이익           | 410   | 148    | 278   | 430    | 516    | 457    |
| 영업이익률          | 8.9%  | 2.9%   | 5.0%  | 8.0%   | 9.4%   | 8.2%   |
| YOY            |       |        |       |        |        |        |
| 매출액            |       | 12.6%  | 7.8%  | -4.1%  | 2.1%   | 1.4%   |
| S사 및 그 종속기업    |       | 17.0%  | -1.4% | 1.5%   | 10.1%  | 1.1%   |
| 그 외            |       | -5.8%  | 54.4% | -22.1% | -31.5% | 3.3%   |
| 영업이익           |       | -63.8% | 87.3% | 54.8%  | 20.2%  | -1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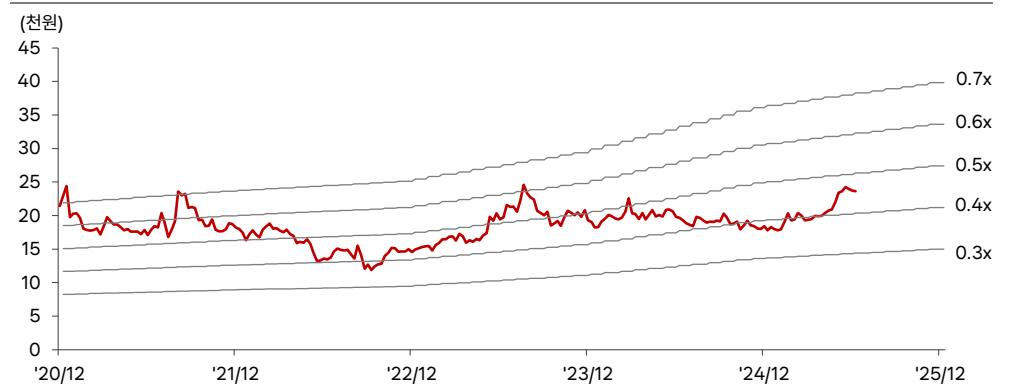
자료: 동양이엔피,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Valuation

### 더 높은 PBR Band에서 거래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ROE 수준

동양이엔피는 2025년 예상 BPS 대비 PBR 0.4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동사의 PBR은 2021년 이후 0.3배~0.7배 사이에서 움직였다. 이를 감안하면 동사의 주가는 PBR Band 중하단에 위치해 있다.

#### 동양이엔피 역사적 P/B 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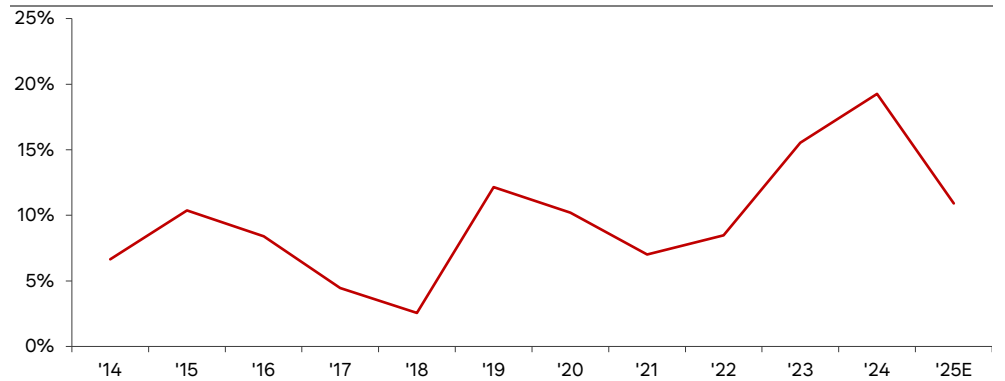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양이엔피의 ROE는 호치민 법인에 대한 투자 이후 한 단계 올라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 호치민 법인에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기 시작한 2022년을 기점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 ROE는 각각 8.5%, 15.5%, 19.3%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동양이엔피의 9년 평균 ROE 7.8%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고객사의 재고조정 및 지속되는 투자로 ROE 하락이 예상되는 2025년에도 기대되는 ROE 수준은 10.9%로 9년 평균 ROE 7.8% 대비 3.1%p 높다.

효율적인 투자 집행으로 동사의 실적 레벨은 한 단계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만, 동사의 주가는 역사적 P/B Band 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기존의 PBR Band보다 높은 구간에서 거래될 여지가 충분하다.

#### 동양이엔피 ROE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높은 ROE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체 대비 할인**

동양이엔피는 2025년 1분기 기준 BPS 대비 0.4배에서 거래되고 있어, 동종업체 Trailing PBR 평균 0.8배 대비 낮은 배수에서 거래되고 있다. 동종업체로는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에 SMPS 및 충전기를 납품하는 솔루엠, 한솔테크닉스, 이랜텍, 알에프텍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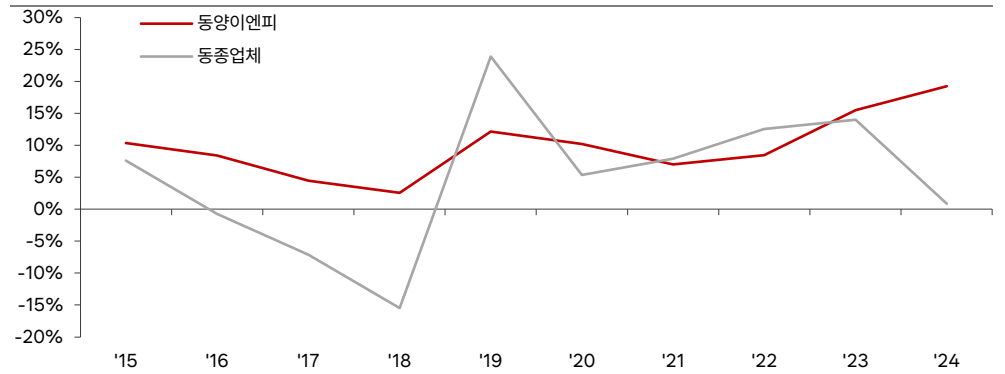
**동종업체 valuation**

| 기업명          | 종가(원)         | 시가총액<br>(십억원) | 매출액(십억원)   |            | 영업이익(십억원) |           | P/E(배)     |            | P/B(배)     |              |
|--------------|---------------|---------------|------------|------------|-----------|-----------|------------|------------|------------|--------------|
|              |               |               | '24        | '25E       | '24       | '25E      | '24        | 25E        | '24        | Trailing P/B |
| <b>동양이엔피</b> | <b>23,650</b> | <b>186</b>    | <b>548</b> | <b>556</b> | <b>52</b> | <b>46</b> | <b>2.0</b> | <b>4.1</b> | <b>0.4</b> | <b>0.4</b>   |
| 솔루엠          | 16,930        | 810           | 1,594      |            | 69        |           | 24.3       |            | 2.1        | 1.9          |
| 한솔테크닉스       | 6,120         | 197           | 1,199      |            | 33        |           | 18.6       |            | 0.3        | 0.5          |
| 이랜텍          | 5,970         | 151           | 556        |            | 16        |           | 418.5      |            | 0.5        | 0.6          |
| 알에프텍         | 2,600         | 83            | 358        |            | 2         |           | -6.9       |            | 0.6        | 0.4          |
| <b>평균</b>    |               |               |            |            |           |           |            |            |            | <b>0.8</b>   |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7/7 주가 기준

동양이엔피의 10년 평균(2015년~2024년) ROE는 9.8%로 동종업체 4사의 평균 ROE 4.9%를 4.9%p 상회했다. 특히 동사의 베트남 호치민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과거 2년(2023년~2024년) ROE는 17.4%로 동종업체 4사의 평균 ROE 7.4%를 10.0%p 상회했다.

**동양이엔피와 동종업체 ROE 비교**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더 높은 PBR을 받기 위해서는  
 기대성장률이나 배당성향  
 상승 필요**

적정 PBR의 주요 변수인 ROE가 가장 높은 동양이엔피이지만, 동종업체 중 가장 낮은 PBR 배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적정 PBR의 또 다른 변수인 기대성장률, 배당성향에서 동양이엔피가 동종업체 중 가장 낮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신사업(스마트그리드 솔루션 전문기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나, 배당성향 향상이 필요해 보인다.

 **리스크 요인**

**1 현금 활용을 잘 해야**

**낮은 주주환원율**

동양이엔피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주주에게 46억 원을 배당했다. 이는 지배주주순이익 696억 원 대비 6.6% 수준이다. 동사의 배당성향 6.6%는 코스닥 배당법인의 평균 배당성향 34.74% 대비 낮은 수준이다. 동사가 2025년 1분기 말 기준 1,494억 원의 현금 및 단기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 2025년에도 약 400억 원 이상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영업현금흐름-Capex)이 기대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사 측에서도 투자자들의 이런 의견을 경청하고 2024년 하반기에 40억, 2025년 상반기에 20억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바가 있다. 그러나 소각을 전제로 한 자사주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환원 의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금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활용 방안 필요**

동사의 주가가 저평가 받는 바탕에는 낮은 주주환원율과 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IR과 더불어 보유한 현금을 잘 활용하여 이런 우려를 덜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포괄손익계산서**

| (억원)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F |
|---------------|-------|-------|-------|-------|-------|
| 매출액           | 5,194 | 5,598 | 5,369 | 5,484 | 5,560 |
| 증가율(%)        | 12.6  | 7.8   | -4.1  | 2.1   | 1.4   |
| 매출원가          | 4,602 | 4,912 | 4,697 | 4,699 | 4,826 |
| 매출원가율(%)      | 88.6  | 87.7  | 87.5  | 85.7  | 86.8  |
| 매출총이익         | 592   | 686   | 672   | 785   | 734   |
| 매출이익률(%)      | 11.4  | 12.3  | 12.5  | 14.3  | 13.2  |
| 판매관리비         | 444   | 409   | 242   | 268   | 276   |
| 판매비율(%)       | 8.5   | 7.3   | 4.5   | 4.9   | 5.0   |
| EBITDA        | 261   | 395   | 557   | 647   | 600   |
| EBITDA 이익률(%) | 5.0   | 7.1   | 10.4  | 11.8  | 10.8  |
| 증가율(%)        | -47.6 | 51.4  | 41.1  | 16.3  | -7.3  |
| 영업이익          | 148   | 278   | 430   | 516   | 457   |
| 영업이익률(%)      | 2.9   | 5.0   | 8.0   | 9.4   | 8.2   |
| 증가율(%)        | -63.8 | 87.3  | 54.8  | 20.2  | -11.4 |
| 영업외손익         | 101   | 24    | 72    | 283   | 101   |
| 금융수익          | 210   | 283   | 292   | 420   | 98    |
| 금융비용          | 103   | 252   | 228   | 140   | 2     |
| 기타영업외손익       | -7    | -6    | 7     | 3     | 5     |
|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 -6    | 7     | 11    | 13    | 2     |
| 세전계속사업이익      | 243   | 308   | 512   | 812   | 560   |
| 증가율(%)        | -14.4 | 27.0  | 66.0  | 58.6  | -31.0 |
| 법인세비용         | 66    | 79    | 42    | 117   | 104   |
| 계속사업이익        | 177   | 230   | 470   | 695   | 456   |
| 중단사업이익        | 0     | 0     | 0     | 0     | 0     |
| 당기순이익         | 177   | 230   | 470   | 695   | 456   |
| 당기순이익률(%)     | 3.4   | 4.1   | 8.7   | 12.7  | 8.2   |
| 증가율(%)        | -24.6 | 29.6  | 104.6 | 48.0  | -34.3 |
|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 177   | 230   | 470   | 696   | 457   |

**현금흐름표**

| (억원)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F |
|-----------------|------|------|------|------|-------|
|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35  | 375  | 768  | 753  | 544   |
| 당기순이익           | 177  | 230  | 470  | 695  | 456   |
| 유형자산 상각비        | 107  | 110  | 121  | 126  | 138   |
| 무형자산 상각비        | 6    | 7    | 6    | 5    | 5     |
| 외환손익            | 3    | 71   | 36   | 18   | 0     |
| 운전자본의감소(증가)     | -333 | -130 | 111  | -46  | -2    |
| 기타              | 5    | 87   | 24   | -45  | -53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295 | -226 | -846 | -380 | -140  |
|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 0    | 0    | 0    | 0    | -1    |
| 유형자산의 감소        | 2    | 4    | 9    | 2    | 0     |
| 유형자산의 증가(CAPEX) | -271 | -112 | -67  | -132 | -121  |
| 기타              | -26  | -118 | -788 | -250 | -18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48   | 23   | -80  | -72  | 0     |
| 차입금의 증가(감소)     | 49   | 20   | -80  | -2   | 0     |
| 사채의증가(감소)       | 0    | 0    | 0    | 0    | 0     |
| 자본의 증가          | 0    | 0    | 0    | 0    | 0     |
| 배당금             | 0    | 0    | 0    | 0    | 0     |
| 기타              | -1   | 3    | 0    | -70  | 0     |
| 기타현금흐름          | 15   | 4    | 6    | -2   | 7     |
| 현금의증가(감소)       | -266 | 176  | -152 | 300  | 411   |
| 기초현금            | 403  | 137  | 313  | 160  | 460   |
| 기말현금            | 137  | 313  | 160  | 460  | 871   |

**재무상태표**

| (억원)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F |
|-----------|-------|-------|-------|-------|-------|
| 유동자산      | 2,163 | 2,448 | 2,716 | 2,809 | 3,252 |
| 현금성자산     | 137   | 313   | 160   | 460   | 871   |
| 단기투자자산    | 707   | 739   | 1,387 | 1,267 | 1,285 |
| 매출채권      | 592   | 632   | 681   | 537   | 544   |
| 재고자산      | 613   | 646   | 393   | 339   | 344   |
| 기타유동자산    | 115   | 118   | 94    | 206   | 209   |
| 비유동자산     | 1,401 | 1,414 | 1,527 | 2,077 | 2,056 |
| 유형자산      | 1,037 | 1,038 | 978   | 1,136 | 1,119 |
| 무형자산      | 51    | 47    | 41    | 40    | 35    |
| 투자자산      | 177   | 181   | 336   | 823   | 824   |
| 기타비유동자산   | 136   | 148   | 172   | 78    | 78    |
| 자산총계      | 3,565 | 3,861 | 4,243 | 4,885 | 5,308 |
| 유동부채      | 789   | 905   | 811   | 720   | 730   |
| 단기차입금     | 60    | 80    | 0     | 0     | 0     |
| 매입채무      | 524   | 620   | 585   | 428   | 433   |
| 기타유동부채    | 205   | 205   | 226   | 292   | 297   |
| 비유동부채     | 149   | 169   | 169   | 154   | 156   |
| 사채        | 0     | 0     | 0     | 0     | 0     |
| 장기차입금     | 0     | 0     | 0     | 0     | 0     |
| 기타비유동부채   | 149   | 169   | 169   | 154   | 156   |
| 부채총계      | 939   | 1,075 | 981   | 874   | 886   |
| 자배주주지분    | 2,626 | 2,787 | 3,262 | 3,966 | 4,378 |
| 자본금       | 39    | 39    | 39    | 39    | 39    |
| 자본잉여금     | 238   | 238   | 238   | 238   | 238   |
| 자본조정 등    | 0     | 0     | 0     | -40   | -40   |
| 기타포괄이익누계액 | 4     | -23   | -5    | 81    | 81    |
| 이익잉여금     | 2,345 | 2,533 | 2,990 | 3,648 | 4,059 |
| 자본총계      | 2,626 | 2,787 | 3,262 | 4,011 | 4,422 |

**주요투자지표**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F  |
|--------------|---------|--------|--------|---------|--------|
| P/E(배)       | 8.3     | 5.1    | 3.5    | 2.0     | 4.1    |
| P/B(배)       | 0.6     | 0.4    | 0.5    | 0.4     | 0.4    |
| P/S(배)       | 0.3     | 0.2    | 0.3    | 0.3     | 0.3    |
| EV/EBITDA(배) | 2.6     | 0.5    | 0.2    | N/A     | N/A    |
| 배당수익률(%)     | 1.6     | 2.0    | 1.9    | 3.3     | 2.5    |
| EPS(원)       | 2,253   | 2,921  | 5,975  | 8,849   | 5,810  |
| BPS(원)       | 33,409  | 35,453 | 41,506 | 50,460  | 55,693 |
| SPS(원)       | 66,084  | 71,223 | 68,310 | 69,770  | 70,738 |
| DPS(원)       | 300     | 300    | 400    | 600     | 600    |
| 수익성(%)       |         |        |        |         |        |
| ROE          | 7.0     | 8.5    | 15.5   | 19.2    | 10.9   |
| ROA          | 5.2     | 6.2    | 11.6   | 15.2    | 9.0    |
| ROIC         | 10.0    | 12.0   | 26.8   | 31.2    | 24.4   |
| 안정성(%)       |         |        |        |         |        |
| 유동비율         | 274.0   | 270.4  | 334.7  | 389.9   | 445.3  |
| 부채비율         | 35.7    | 38.6   | 30.1   | 21.8    | 20.0   |
| 순차입금비율       | -29.8   | -34.8  | -47.3  | -43.1   | -48.7  |
| 이자보상배율       | 4,110.2 | 501.9  | 783.0  | 2,224.6 | N/A    |
| 활동성(%)       |         |        |        |         |        |
| 총자산회전율       | 1.5     | 1.5    | 1.3    | 1.2     | 1.1    |
| 매출채권회전율      | 11.0    | 9.1    | 8.2    | 9.0     | 10.3   |
| 재고자산회전율      | 9.8     | 8.9    | 10.3   | 15.0    | 16.3   |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 종목명   |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
|-------|--------|--------|--------|
| 동양이엔피 | X      | X      | X      |

**발간 History**

| 발간일        | 제목                        |
|------------|---------------------------|
| 2025.07.11 | 동양이엔피 - 전원공급장치(SMPS) 전문기업 |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